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toward the Fairness of Korean College Admission System: A Grounded Theory Approach

최정목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Jong-Mook Choe(dfever@korea.ac.kr)

요약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가 근래 다양화되면서 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다.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정책대안 혹은 교사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는 대학입시제도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대학생 11명의 인터뷰자료를 이용하여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과적 조건은 수능시험위주에서 벗어난 대입전형의 다양화과정에서 일어난 잦은 제도의 변경이며, 중심현상은 절차적 측면과 분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대입제도의 불공정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맥락적 조건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와 인프라의 격차로 분석되었으며 중재적 조건으로는 정보화기술의 발전과 개인 혹은 집단 차원의 노력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은 대학입학전형의 불공정성이 일회적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중심어 : | 대학입시제도 | 공정성 | 근거이론 |

Abstract

Diversification of college admission system has recently brought up the problem of system fairness. Studies on fairness of college admission system mainly focused on policy proposal or investigation of teacher's perception. Different from previous works, this study aims to analyz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fairness of the current college admission system. This study used grounded theory and interviews from eleven students.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Causal condition proved to be frequent change in admission system happened in the course of diversifying admission criteria. The core phenomenon is fundamental unfairness in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ve aspects of admission system. Contextual condition is information and infrastructure asymmetry among students which has a root in regional gap in Korea. Mediatory condition is adv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dividual or group effort to overcome disadvantages. In conclusion, students consider that unfairness in college admission system reflects social structural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in a one-time prescription.

■ keyword : | College Admission System | Fairness | Grounded Theory |

I. 서론

대한민국에서 대학입학전형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측면 외에도 학생의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사실상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반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분야 중 하나이다. 대학입학전형에서 공정성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필연적 경쟁구도가 우리나라에서 항상 만들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학입학전형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주관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각 대학에게 선발의 자율권이 점차 부여되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학입학전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수능능력시험제도가 국가관할 하에 있고 기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방식들도 국가교육정책의 큰 틀 안에서 규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정책에서 공정성은 언제나 중요한 화두이다.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책은 정책집행자나 정책대상자들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불응을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정책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1]. 대학입학전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정서가 확산된다면 이는 대학입학에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국가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응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는 과거의 대학입학학력고사나 현재의 수능능력시험과는 달리 한국인들이 익숙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선발방식에서 벗어나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수험생의 특징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에 수반된 공정성문제도 과거에 비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계속 진행되어온 대학입학정책의 다양화의 추세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관련해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여기서 교육정책, 사회정책의 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의 공정성 인식이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교수, 교사 등의 인식과 비교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대가의 공정성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특정 노동자들이 그들의 임금에 대한 불공정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저생산성, 이직, 직무불만,

결근 혹은 상사에 대한 불신 등의 양태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조직의 비효과성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2].

대입전형정책과 관련하여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즉, 정책집행의 당사자 중 하나인 학생들이 대입전형에서 불공정성을 심하게 느끼고 자신의 노력이 제대로 대학입시에서 보상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정서가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감퇴시키고 학업 면에서의 성취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 대입정책의 이행과정에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위와 같은 부작용이 학생들로부터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1개의 학생인터뷰를 자료로 하여 현행 대학입시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본다. 이 연구는 미리 가설을 설정하고 표본을 추출하여 가설의 타당성여부를 분석하는 연역적 연구가 아니라 귀납적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회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실증주의적 연구방법론과는 다른 질적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입시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새롭게 만들어보고자 한다.

II. 공정성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1. 공정성에 관한 이론들

사회적 불평등,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불평등은 오래 동안 여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어 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공정성 이론의 시초도 분배적 공정성의 논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투자에 정비례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 분배적 공정성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3]. 이어서 형평성 이론(equity theory)에서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분배적 공정성을 이해하기도 하였다[4].

또한 분배적 공정성 이론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투입과 산출을 타인의 그것과 계속 비교하며

어떤 이유에서든 서로간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른바 불공정에 따른 긴장(inequity tension)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5]. 이렇듯 분배적 공정성으로부터 시작된 공정성에 대한 이론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으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의 절차나 규칙 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고 현대에 넘어오면서 차츰 절차적 공정성의 중요성이 같이 대두되는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다.

절차적 공정성에서는 결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최종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평가한다[6].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논의는 사회심리학자인 Thibaut와 Walker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7] 보통 절차적 공정성의 요인으로는 절차에의 접근성과 유연성 그리고 절차를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일관성과 편파적인 대우의 배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을 때 도출된 결과에 관계없이 당사자는 불공정성을 인식하게 되고 도출된 결과마저도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절차의 공정성문제는 결과의 공정성문제만큼 그 중요성에 있어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8][9].

2. 대학입학전형과 공정성문제

한국 교육은 전통적으로 서열화된 대학에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성적 위주의 선발이 제도화되었다[10]. 하지만 지금은 잠재적 능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새로운 제도가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런 제도들은 정량적으로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기 쉽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성의 확보는 제도의 정착과 성공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미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입학사정관제도 등 선발의 공공성을 전형방식의 다양화와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1][12]. 대학에서 선발의 공정성이 지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 되는 것은 대학의 합격자수가 제한되어 있고 대학의 합격 여부가 한국 사회에서

지원자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은 학생들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게 되며 공정함이라는 윤리적 덕목이 크게 요구된다.

학업능력을 측정하는 대학입학능력고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한 기타 전형에서 이른바 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일수록 교과 성적 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활동에 더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배적 공정성과 관련된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13].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의 사교육의 성격은 사교육을 통하여 진정한 능력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의 성격이 강하므로 자연히 사교육에 대한 지원의 차이가 학력의 차이로 연결되며 이는 경제력이 경쟁을 왜곡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있다[14].

대학입학전형의 절차적 공정성에 관련된 문제로는 제도의 잦은 변화가 그 시행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해 2008년의 수학능력시험 등급제처럼 1년 만에 제도가 사라지는 비효율성이 생기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제도를 연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하에서의 정책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집행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부족은 공공정책의 공정성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화두이기도 하다[1].

3. 공정성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어느 조직에서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여러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문화예술분야 공공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예술가 그룹과 비창작 영역 종사자 그룹에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창작집단과 비창작 집단 간의 공정성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같은 문화예술계 안에 있으면서도 예술인 집단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창작 집단보다 더 공정성 문제를 자주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방송 저널리즘의 공정

성을 기자 집단과 프로듀서 집단으로 나눈 저널리스트들의 공정성 인식을 통해 연구하여 뉴스를 주로 다루는 기자는 균형성과 중립성을, 시사프로그램을 다루는 프로듀서는 사실성과 맥락성을 저널리즘 공정성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도 존재한다[15].

기업기부에 대한 사회복지실무자들의 공정성 인식이 친기업적 자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상호작용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분배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이 발견되었으며[5], 공정성인식이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 발견되었으며[16],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공정성인식을 다루면서 이주 전 월평균수입이 적을수록, 근로조건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도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2].

III. 근거이론을 통한 분석

1. 방법론으로서의 근거이론

근거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관점에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 즉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반응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방법론이다[17]. 또한 근거이론은 이론 구축의 축을 중심에 놓고 하나의 범주에 하위 범주를 관련짓는 귀납적 사고와 연역적 사고방식을 동시에 포함한다[18][19]. 이 이론은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술을 토대로 이론을 만들게 되며 현장에서 얻은 질적 정보들을 개념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기에 자료로부터 점차 추상화된 범주를 도출해나가는 체계화된 과정이며 이론의 발전을 위한 방법론이라는 특징을 가진다[20].

대입전형제도와 그의 변화는 학생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문제이며 근거이론을 이용하면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을 구성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근거이론을 통해 양적분석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현상을 둘러싼 복잡한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당사자의 반응뿐만 아니라 그 맥락과 과정적 요인을 파악하기에도

유용하다[21]. 그리고 근거이론은 인과적 연결 구조를 통해 이론 형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지금까지 선행연구가 극히 부족했던 학생들의 반응을 상대로 한 교육관련 연구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공정성의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양적 분석을 이용한다면 일반화는 쉽게 이끌어 낼 수 있겠지만 대상자를 설문지 안의 단순화된 의견만을 선택하게 해서 대상자의 감정과 역동성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근거이론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표현 속에서 참여자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주요 사건이나 문제점을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근거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그 숫자가 매우 적는데 초등학생이 일제시험 동안 겪는 경험의 실체를 연구한 논문[22]이 대표적이다.

근거이론의 절차로는 일단 연구문제를 확정 지은 후 인터뷰와 문헌 등 자료를 수집하면서 분석을 하게 된다. 보통 근거이론에서의 분석은 코딩(coding)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코딩이란 모인 질적 연구 자료를 세밀히 나누는 후 개념(concepts)이 일치하는 것들을 모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개념들을 공통된 것끼리 다시 묶어 범주(category)를 만들고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범주를 중심현상이라 부른다. 그리고 다른 범주들을 원인, 조건 등에 위치시키면서 하나의 이론을 완성하게 된다. 이후 다시 자료를 모으면서 이론을 정밀화시키고 더 자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론이 정밀화(saturation) 되었을 때 경험의 유형화가 이루어지고 최종 이론을 제시하게 된다[23][24].

2. 인터뷰대상과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K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1차적으로 해당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터뷰의 간단한 주제를 담아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연구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학생들로 선정되었고 또한 인터뷰를 마친 학생으로부터의 스노우

불링을 통해서도 선정되었다. 하지만 인터뷰 대상자들의 일정 문제로 대상자들의 배경 등을 전부 고려한 자세한 선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터뷰는 전부 대상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녹취록이 작성되었고 인터뷰 대상자들에게는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참여의 대가로 주어졌다.

표 1. 인터뷰 대상자들의 프로필

번호	성별	단과대학	대입전형	입학연도	출신지역	출신고 유형
1	여	공과	정시	2009	경기	일반고
2	여	문과	정시	2008	제주	외고
3	남	생명과학	정시	2005	부산	일반고
4	남	생명과학	수시	2006	전남	일반고
5	여	정경	정시	2009	경북	일반고
6	여	미디어	정시	2011	충남	외고
7	남	공과	정시	2007	경남	일반고
8	남	문과	수시	2008	충북	일반고
9	여	보건과학	수시	2009	경기	일반고
10	여	정경	수시	2009	대전	외고
11	여	경영	정시	2007	서울	외고

3. 개념 및 범주들의 정리

인터뷰 자료를 개방코딩 분석한 결과 29개의 개념서술이 도출되었으며, 이 개념서술들로부터 20개의 하위 범주가 추출되었다. 그리고 이 하위범주들을 더욱 추상화시킨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이후 인터뷰자료를 검토하면서 Strauss와 Corbin의 패러다임 모형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23]. 개방코딩에서 개념화되고 구성된 범주들을 중심으로 범주들의 속성을 파악하여 범주들을 서로 연결하고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및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그리고 결과의 근거이론 틀에 맞추어 축코딩과 선택코딩이 차례로 이루어졌다.

표 2. 근거이론을 통해 도출한 개념 및 범주들

개념	하위범주	범주
지속성 없는 제도운영, 불만이 나오면 바로 바뀔	제도의 비일관성	입시제도의 짚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
자주 바뀌는 제도에 대한 불안감과 혼란	으로 인한 혼란	
혼란을 예상하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의 무능	수능 이외 입시제도에
면담방식 입학사정관제의 효용성에 대한 의심	공정성에 대한 의심	

자율성과 공정성의 상충관계		
논술시험의 모호한 채점기준	기준의 모호함	대한 절차적 불신
선발기준의 모호함		
수치화된 자료와 객관적지표로서의 수능의 우수성	수능의 객관성	
부유층에 유리한 전형 존재	입시에서의 부모 재력의 중요성 증가	부유층에 우려되는 입 시제도
부모 재력의 중요성과 양극화		
빈곤층 가정 출신 학생의 감소	학력의 대물림	
좋은 학력부모의 지도능력	지방에 불리한 정보비대칭	서울과 지방 간의 정보, 인프라, 네 트워크 불평 등
서울과 지방의 정보비대칭	지방에 불리한 정보비대칭	
지방학생들의 패배감	인터넷으로 알 수 없는 고급정보의 존재	서울과 지방 간의 정보, 인프라, 네 트워크 불평 등
인터넷으로 알 수 없는 고급정보의 존재	폐쇄적 입시정보의 존재	
서울과 지방 학생들의 정보비대칭에 관한 다른 의견들	서울 지방간 인식차	
지방 학부모 네트워크의 부존재	서울 지방간 네트워크와 인프라의 차이	
교육열과 인프라의 차이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법들	비대칭완화
지방외고의 우수한 교육서비스	자녀들이 해외경험을 가지도록 함	
인터넷강의의 보급	부유층의 대응	대응방식
지방 학생들이 서울에서 학원을 다님	비부유층의 대응	
자식교육의 전통적 중요성으로 경쟁 심화	높은 교육열	높은교육열 과 공교육붕 괴
공교육의 붕괴로 인한 격차 심화	공교육 붕괴	
학벌사회로 인한 경쟁 심화	학벌사회	학벌사회로 대표되는 사 회구조의 문 제
대학간편이라는 꼬리표	대물림현상	
사회구조의 대물림	사회구조의 절대적 영향	
사회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입시정책	문제의 지속적 성격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회의감		

위 [표 2]는 근거이론의 방식을 따라 이 연구에서 도출된 개념 및 범주들을 나타낸다. 위 표에서 제시된 상위범주 8개 중 제도의 짚은 변경에 관한 첫 번째 범주가 인과적 조건에, 그리고 절차적·분배적 불공정성을 나타내는 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가 중심현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중심현상의 발생에 기여하는 맥락적 조건으로 네 번째 범주인 정보 및 네트워크 불평등이 해당하며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적 조건으로는 ‘비대칭완화’와 ‘대응방식’ 범주가, 마지막으로 높은 교육열과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마지막 두 개의 범주가 결론부분에 해당할 것이다. 이하에서 인과적 조건부터 차례로 설명하기로 한다.

3.1 인과적 조건

인과적(원인적) 조건은 중심현상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며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들의 반응이 발생하는 초기 조건이 된다. 이 연구에서 원인적 조건이란 학생들의 인터뷰로부터 발견된 범주라기보다 학생들이 직면한

정책적인 원인적 상황 그 자체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대입제도개혁을 위하여 수시입학의 비중을 늘리고 입학사정관제도를 채택하는 등 대입제도가 다양화되고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대입제도의 직접 당사자이고 누구보다 큰 영향을 받지만 교육현장에서 일정한 목소리를 가진 교사들과는 달리 위로의 소통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제도의 잦은 변경과 다양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수동적으로 대응해야만 하였다.

3.2 중심현상: 대입전형의 불공정성

모든 범주를 연결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현상으로 학생들이 '대학입학전형에 대해 심한 불공정성을 느끼는 상황'이 발견되었다. 이는 전형 자체가 이루어지는 절차적 공정성 측면뿐만 아니라 대입전형이 일정한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전개된다는 분배적 공정성 측면의 두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3.2.1 절차적 불공정성과 대입제도

먼저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수시전형보다 더 공정하다고 답변한 수능능력시험에 관해서도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삼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특히 예를 들어 '수능능력시험 등급제'는 2008년에 실시되고 바로 1년 뒤엔 2009년에 취소되어 입시제도의 예측가능성을 가장 심하게 훼손하였고 정책 내용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태를 겪은 학생들은 입시제도에 대해 상당한 절차적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었고 약간의 감정적인 대응도 발견되었다. 또한 수능능력시험 자체로부터 사교육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작된 EBS강의연계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발견되었다.

수능능력시험의 절차적 불공정성에 대해 학생들은 철저한 준비 없는 정책시행과 이에 대한 비판이 따르자 조변석개 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책변동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루었다. 즉, 공정한 절차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예측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결국 입시정책이 학생들의 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학생들이 가지게

된 거서를 다음의 인터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입관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를 틀렸는데 3등급이 나온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뒤죽박죽되니까 아... 안되겠다... 다시 표점(표준점수)로 돌아가자.” (학생 1)

“아무래도 수험자 입장에서는 계속 바뀌면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고...”(학생 3)

“저희 위 학번 08년도 학번이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등급제로 바뀌고 그 다음 연도부터 안하고...” (학생 5)

“과정이 1-2년마다 바뀌면서 혼란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딱히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학생 7)

“제일 큰 문제는 수능시험에 대한 변별도를 못 준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구요.” (학생 7)

“등급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부작용이 날 거라는 게 뻔한데 실시를 했다는 거 자체가 알면서도 (학생들을 조금 희생시키더라도) 실시를 했던 약간 개혁을 빙자한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학생 7)

절차적 불공정성의 인식은 수능능력시험뿐만 아니라 근래 크게 확대되고 있는 수시입학전형이나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발견되었다. 수시입학전형은 눈술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수능능력시험처럼 정량적 측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절차적 불공정성을 느낄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인터뷰자료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입학사정관제를 하고 있으면... 교수님 불러다 놓고 재 역량을 얼마나 평가하겠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게 과연 사람대 사람으로 만나서 그거 하는 것 뿐인가...” (학생 1)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눈술을 썼는데... 잘 쓴 거 같은데... 도대체 채점기준이 뭐가... 그런걸 명확히 안 해줘 가지고...”(학생 1)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학교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문제는, 각 학교에서 얼마나 공정성을 갖고 학생 선발에 있어 참여를 하나, 실시를 하나, 전 그게, 항상 의문이 들었죠 솔직히...”(학생 4)

“주변에 보면 수시합격해서 들어온 친구들도 많고 한테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내가 어떻게 이 학교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교수들이 채점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이...”(학생 7)

“아는 언니가 재외국민 전형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언니가 잘 적응해서 잘 따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뽑는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학생 9)

“이건 도는 소문인데, 교수님이 다 채점하는 게 아니라 조교가 채점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왔고...”(학생 9)

특히 학생들이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수능능력시험 체제에 많이 익숙한 상황에서 다른 제도의 도입에 대해 불공정성의 우려를 나타내었으며 수시 및 입학사정관 제에서 각 대학의 학생선택이 자의적으로 될 수 있다는 면이 많이 지적되었다. 즉, 수치화되지 않은 측정방법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제도는 수능, 아무도 지적을 못하잖아요”(학생 9)

“공정성, 사회정의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그러니깐 수능처럼 정시처럼 딱 점수가 나와서 어느 누구도 반론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공정성을 확보... 그러니깐 그런 것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학생 3)

“그게 분명히 어떻게 보면 수치화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학생 3)

“정시전형 같은 경우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균등화된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전의 그 일제화, 아니 획일화된 시험 하나로 평가를 하니까 누구나 다 공평하잖아요”(학생 4)

3.2.2 분배적 불공정성과 대입제도

분배적 불공정성의 인식이란 대입전형의 운영에서 생길 수 있는 불공정성이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대학으로의 입학이 영향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회적 요인에는 한국 사회에서 크게 문제되었고 지금도 문제되고 있는 지역격차, 소득격차 등이 포함된다. 지역격차와 소득격차는 전술했던 사교육의 수준차이로 이어지고 학생의 대학입학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사교육의 수준차이는 수능능력시험보다 기타 전형에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불균형을 소위 ‘강남’지역과 타 지역 간의 격차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보였다. 그리고 입학생들의 수준이 높은 대학일수록 부모가 부유층일 확률이 높다는 의견도 발견되었다.

“외국전형이나 글로벌전형 이런건 솔직히 중산층 밑으로는 잘 못 보내잖아요”(학생 3)

“아무래도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는 환경에서 자라려면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부분이 제 생각에는 크게 연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편한 진실이죠”(학생 4)

“외국어전형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부자집 애들 이라든지 수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요즘에 학원이니 과외니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집에서 열심히 하면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데 요즘에 수시 폭은 넓히면서 점점 더 교육에 있어서 양극화가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학생 10)

“아직도 주변에서 보면 엄마아빠가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데 자기가 혼자 노력해서 온 애들도 있는데 그 비중이 선배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선배들 중에는 몇 명 있어요 제 또래에서는 일단 아무도 없고 점점...”(학생 10)

또한 단순히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고학력을 가진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더욱 열성적인 요인도 자녀의 성취도를 올려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의견도 발견되었다.

“...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른 지역보다 좋은 대학을 나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학생 7)

“그런 친구들이... 기회도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깐... 부모님이 학력이 높은 친구들이 부모님이 더 많이 아시니까... 부모님이 더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학생 9)

3.3 맥락적 조건: 대학입시 인프라와 정보비대칭

맥락적 조건이란 중심현상의 발생에도 기여하며 또한 중심현상에 대한 개인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접적 영향을 주는 범주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출신지역, 학교에 따라 특히 대학입시에 대한 정보격차와 관련해 다른 입장을 보였으며 이것이 학생들이 느끼는 불공정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지방출신 학생들은 정보격차를 많이 강조하였으며 수도권지역 학생은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서울과 지방간의 정보의 격차는 수도권중심의 발전이 만들어낸 분배적 측면의 불공정성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정보의 불평등에 동의하는 입장들은 다음과 같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출신이잖아요. 수도권 혹은 대도시 그리고 지방간의 정보비대칭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느꼈고 지금도 그 갭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접근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도...”(학생 2)

“네 확실히 다르긴 했죠. 그런 정보라는게... 아무래도 저는 부산이니까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다수의 도시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시긴 했지만 이제 서울에 오면서 확실히 좀 정보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 느꼈고...”(학생 3)

“자기가 배우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인터넷강의로 커버가 되겠지만 입시정보 같은걸 실시간으로 감지하거나 피부로 느끼는 건 힘들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학

생 8)

“대전에 있었을 때 그렇게 느껴서 열등감이 좀 있었어요. 난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외고에서 잘 해도 서울 학생들 못 따라 간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학생 10)

“외고인데도 좀 느꼈어요. 그런 인식 자체가 좀 있어요. 우린 지방이니까 좀 불리하다. 지역불균형이 워낙 심하니까...”(학생 10)

둘째로 정보의 불평등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저는 별로 크게 실감하지 않는게 제가 수도권이라기보다도 지방에서 다닌 친구들이 저희 학교 오잖아요. 요즘엔 입시설명회 같은 것도 지방거점도시에서 많이 하잖아요. 본인이 알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요즘엔 그다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학생 9)

위에서 살펴본 입시제도 등에 대한 정보비대칭뿐만 아니라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이 학부모들의 네트워크로 인해 정보비대칭이 생긴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역시 앞에서 살펴보았던 지역격차 혹은 소득격차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두 개의 인터뷰가 이러한 입장을 나타낸다.

“정보비대칭에 매우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여기저기 학부모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부산이나 울산 그런 대도시를 빼고 나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그런 네트워크가 없어요.”(학생 8)

“물론 입시설명회도 지방에도 있고 그렇지만 그 횟수도 서울 쪽이 훨씬 더 많고 메가스터디학원이니 그런 것도 다 서울에 몰려있고... 학부모들 교육열이 서울이 훨씬 높은 것 같아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도는 정보라든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정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 같고 대전에서는 뭔가 좀 조용해요...”(학생 10)

3.4 중재적 조건: 정보화기술의 발전과 구성원의 노력

중재적 조건이란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주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입제도의 불공정성이라는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터넷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원격강의 수강 혹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환 그리고 특목고에서의 우월한 교육서비스를 이용해 지방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을 대표적인 중재적 조건으로 들 수 있다.

“저는 별로 동의는 안 해요... 저희가 졸업생이 최초로 나온 학교예요... 제가 1기예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거든요 동기들 대학 잘 보낼려고... 여러 가지로 알아봐 주시구.”(학생 6)

“정보비대칭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고등학교까지는 큰 정보의 질적 차이는 못 느끼겠구요 대학 올라와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랑 지방에 있는 대학 차이는 좀 큰 것 같아요 입시과정에서는 가장 큰 거는 학원강사같은게... 아무래도 수도권이 지방보다 훨씬 월등히 질이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인터넷강의라는 걸 통해서 격차가 많이 좁혀졌거든요 2004-5년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학생 7)

3.5 작용/상호작용: 현 제도에 편승

작용과 상호작용은 이미 밝혀진 중심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대상자들의 전략적, 의도적인 반응이나 일상적 행위를 지칭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대응 방식은 대학입시제도의 변화하는 특징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제도의 특성 안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현 상황의 변화를 피하기보다는 주로 상황에 순응하고 따라서 현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집이 부자인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자녀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계발을 많이 시키더라구요 기본적으로 강남에 사는 애들은 해외 1-2년쯤은 기본적으로 찍고 온다던지... 그런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학생 7)

“... 부모님이 케어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돈 그런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기회도 더 많구요” (학생 9)

“저는 대치동쪽으로도 학원을 다녀왔고 송파에 어유명한 학원 있다고 해서 거기도 다녀보고 그랬었거든요..” (학생 9)

“주변 학생들 보면 다 서울에 와서 200만원씩 내고 논술학원 다니고...강남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한달 동안 대전에서 나와서 서울에서 산다던지... 굉장히 그런 학생들이 많았는데...”(학생 10)

3.6 결과: 사회구조적 문제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러한 대입제도의 불공정성이 단순히 대입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대입제도에 반영돼 나타난 것에 불과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학벌을 갖추면 모든 것이 유리해지는 풍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는 불공정성에 대한 중심현상에서의 대상자들의 의견 그리고 맥락적 조건 범주에서 볼 수 있었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정말 재력을 가지신 분들뿐만 아니라 중산층들도 가정 그런거 다 희생하시고 하는 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나... 그 우리나라가 특수한 것 같긴 하지만 교육에 어쨌든 가정에서 일단 제 자식 교육이 1순위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학생 3)

“우리나라는 인식이 뭐 진짜 10년 전 보다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정말 학벌이라는 것이 너무 크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학생 3번)

“아무래도 한국사회에서는 대학, 이런 간판이라는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이 좀 학벌 사회가 심하니까 그래서 기를 쓰고 좋은 대학을 보내려 하는 거고 학생도 가려고 하는거고”(학생 4)

“그러니까 사회구조가 안 바뀌고 그대로 대물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학생 8)

“그게 반드시 입시정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

회구조적인 문제가 똑같이 되고... 현 시스템 자체가 대학을 무조건 가야 하기 때문에...”(학생 8)

“누구나 입시제도라고 하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 회의적인 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학생 10)

“가난해서 그걸 못 하는 애들은 정시로 밖에 갈 수가 없는건데 그걸 점점 좁아지고 공교육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서 입시제도만 계속 다양화한다... 선진국화한다...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학생 10)

3.7 핵심범주의 도출

근거이론에서 선택코딩이라 함은 핵심범주를 확인하고 이러한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하고 정교화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불평등으로 인해 심화되는 교육기회의 박탈과 무력감”을 핵심범주로 도출하였다. 아래 [그림 1]은 핵심범주를 통해 다른 범주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도출한 과정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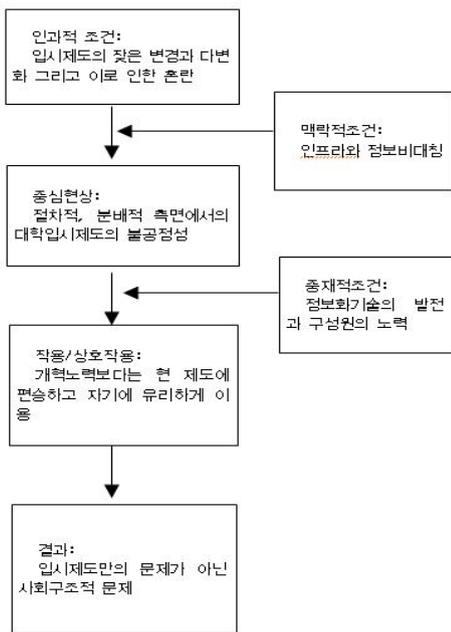


그림 1. 핵심범주의 도출과정

핵심범주: 사회구조적 문제와 불평등으로 인해 심화되는 교육기회의 박탈과 무력감

IV. 결론과 보완점

이 연구는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느끼는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탐색하였다. 중심현상으로는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의 불공정성이 도출되었다. 이는 부모의 소득격차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격차로 인해 벌어지는 분배적 불공정성과 대입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절차적 불공정성의 두 범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었다. 다양한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된 여러 대입제도들에 대해 학생들은 정량화되고 객관적인 선발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신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분배적 불공정성의 근거였던 각 가정의 소득 격차는 교육을 통해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주로 일반고와 외국어고 그리고 서울과 지방으로 대별되는 대학입시에서의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들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분배적 불공정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 것으로 서울과 지방간의 뚜렷한 차이를 특히 지방 학생들이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중재적 조건으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터넷강의 등을 통한 정보 교환의 용이성과 특목고를 중심으로 한 개인별 혹은 집단 차원의 노력이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대학입시에서의 불공정성이 제도의 변화로 인한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는 사회구조적인 영향이 입시제도에 투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정책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피상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제도개선의 진정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서의 공정성인식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공정성 인식을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1][2][15][16][25]. 양적 연구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방법론에 비해 본 연구는 매우 단순한 형식의 설문으로 가설을 설정하거나 검증함

이 없이 상향식으로 자료로부터 이론을 정립해나감으로써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고 일반적인 정책제안 혹은 교사들을 상대로 한 인식조사[12]가 주를 이루었으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같은 분야에서도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1]을 고려해볼 때, 이 연구는 대학입시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인식을 처음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선발추진에서의 불공정성 문제[10][11] 그리고 사회구조적 문제와 대학입시제도의 연관성문제[13]가 이 연구에서도 또 다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도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때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학생들이 주로 들어오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제도의 불공정성을 인식하는 정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의 학생들을 표본으로 삼아 보다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후속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논문에 쓰인 데이터는 2012년에 수행된 인터뷰로 인터뷰자료를 업데이트해 후속연구를 수행한다면 훌륭한 비교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1] 김세훈, 서순복, “문화예술 공공지원정책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주제, 내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3권, 제1호, pp.55-76, 2012.
- [2] 이정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공정성 인식,” 한국인구학, 제24권, 제2호, pp.179-206, 2001.
- [3] G. Homans,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Harcourt Brace, 1961.
- [4] J. Adams, “Inequity in Social Exchange,” Leonard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 Academic Press, 2015.
- [5] 광대석, *기업기부에 대한 사회복지실무자들의 공정성 인식이 친기업적 자발행위에 미치는 영향: 기업 푸드뱅크 헌물기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11.
- [6] 이수진, “화장품 구매고객의 불평행동 연구 - 불평처리 경험전과 후의 불평행동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제33권, 제2호, pp.288-298, 2009.
- [7] Thibaut, John, and Lauren Walker, *Procedural Justice: A Psychological Analysis*, Hillsdale, NJ, 1975.
- [8] R. Folger and M. A. Konovsky, “Effects of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on reactions to pay raise decis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32, pp.115-130, 1999.
- [9] C. Law, K. S. Law, and P. Bobko, “The importance of justice perceptions on pay effectiveness: A two-year study of a skill-based pay plan,” *Journal of Management*, Vol.25, No.6, pp.851-887, 1999.
- [10] 김희용, “공정성 개념 분석과 대학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교육사상연구, 제25권, 제1호, pp.21-50, 2011.
- [11] 정현웅, 김미숙, 임윤희, 권희숙, “우리나라 대학입시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복지행정연구, 제23집, pp.239-260, 2007.
- [12] 한우석, 강경희, 김진경, 이혜경, “대학입학사정관 제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면 접전형을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pp.391-398, 2012.
- [13] 정원규, “교육의 본래 목적과 공정성의 입장에서 본 대학입시의 문제,” 사회와 철학, 제21호, pp.107-140, 2011.
- [14] 이건만,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계급갈등: 학벌 자본의 이론화를 향해,”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4호, pp.63-85, 2007.
- [15] 김연식, “방송 저널리스트의 공정성 인식 연구,”

-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1호, pp.161-186, 2009.
- [16] 김동주, 김영목, 황승배, 김영완, “공정성 인식이 조직구성원들의 혁신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제19권, 제2호, pp.237-258, 2012.
- [17] 김철원, 이태숙, “외국인의 국내 관광경험 분석: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3권, 제7호, pp.96-117, 2009.
- [18] B. Berg and H. Lun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Pearson, 2012.
- [19] 고기숙, 정미경, “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대처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54-279, 2012.
- [20] 한승주, “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4호, pp.29-58, 2010.
- [21] 조준용, “자활제도 참여자의 자활 경험과 전망에 대한 중단적 질적 연구 - 근거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0호, pp.313-324, 2013.
- [22] 나홍하, 변용철, 김대현, “초등학생이 일제 시범기간 동안에 겪는 경험의 실체: 근거이론 방법론적 접근,” 초등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pp.113-138, 2007.
- [23] A. Strauss and J.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Inc., 1990.
- [24] 김영희, 최보영, “대학생의 핵심역량 육성을 위한 Action Learning에서의 경험과정 연구 - 근거이론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477-491, 2013.
- [25] 백평구,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정의에 대한 인식 유형,” 주관성 연구, 제24호, pp.45-62, 2012.

저 자 소 개

최 정 목(Jong-Mook Choe)

정회원



- 1998년 8월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경제학사, 법학사)
- 2005년 5월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통계학과(통계학석사)
- 2014년 8월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정책대학원 강사

<관심분야> : 재무/조세행정, 비교정부, 정책학일반